



광남일보



영광출신 손술 의원 "정권교체는 준엄한 심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승계...22대 국회 최연소

4



기아 오로렌드광주, 군용 중형표준차 양산
48년만에 차세대 모델... "혁신 모빌리티 비전 제시"

7



정기명 여수시장, 민생현장 '소통' 재개
'여수통통' 32회 진행... 시민목소리 청취

9



'2년차' KIA 성영탁, 불펜 활력 불어 넣는다
8경기 10이닝 1홀드 평균자책점 0.00 맹활약

12

주간 제7860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음력 5월 16일)

AX 실증밸리 조성·국립의대 신설 등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도에 현안 새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핵심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 운영의 골격이 짜이는 출범 초기 100일을 지역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으로 판단한 두 지자체는, 정치권 등과 함께 지역공약의 국정 과제화와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과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치권과의 공식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관련기사 3면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민형배 의원,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규택 의원이 참석했고, 광주시 주요 실국장들이 배석해 실무 협의를 병행했다.

이날 광주시는 지난 대선 당시 채택된 7대 핵심 공약과 함께, 자치구별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 총 44건의 지역 과제를 정리해 공유했다.

특히 이 중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형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구축 등은 광주시의 장기 도시 전략과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국정과제 채택 시 중장기 재정 투입과 입법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의제다.

광주시는 AX 실증밸리 조성,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광주대교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C 구간 확장사업의 전역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핵심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강기정 시장이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대응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같은날 김영록 지사가 주재하고 있는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사진 오른쪽) 모습.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핵심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강기정 시장이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대응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같은날 김영록 지사가 주재하고 있는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사진 오른쪽) 모습.

광주, 달빛철도 예타면제 등 44건 예산확보 역량 집중 전남,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등 104건 과제 발굴 공약→국정과제→예산→입법...선순환 구도 실현 노력

국비 반영, 5·18 역사클러스터 국가주도 조성 등 12건의 국비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 지원, 공공배달업 운영 예산 등 5건의 추경 반영 필요사업도 별도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래발전 전략공약, 도정 현안, 정책

·공약·기초 공약과 연계된 현안, 제도 개선 필요 과제 등을 총망라해 총 104건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전남도가 선정한 대표 건의과제는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AIGI반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이다.

이들 사업은 재생에너지·디지털·항공물류·의료 등 전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관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농어업, 인구·복지 등 5개 분야에 15개 실과와 22개 시·군이 참여해 분과별 실무 대응에 돌입했다. 도는 오는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부처 대상 건의 활동을 집중 추진해 국정과제 반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李,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재가

1호 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관보 공포 즉시 시행돼 절차에 따라 각 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개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의결된 3개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3개 특검법은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별도의 수사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역대 특검팀 대부분이 준비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사례를 고려하면, 3개 특검 역시 본격적인 수사는 일러도 다음 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알림

2025 제17회 교통·사회 안전대축전

내달 25일까지 접수... 각 부문 그림·포스터 공모



광주·전남지역의 교통문화와 사회안전 개선을 선도하는 광남일보가 2025 제17회 광주·전남 교통·사회 안전대축전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신 광주·전남지역의 단체 및 개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통안전 부문과 사회안전 부문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사회안전을 주제로 하는 그림 및 포스터(초·중·고)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 7월 25일(금)

△ 심사일정 : 2025년 8월 5일(화) ~ 8월 8일(금)

△ 결과발표 : 2025년 8월 12일(화) 광남일보 홈페이지 및 지면

△ 시상식 : 2025년 8월 27일(수) 오후 2시 / 광주교통문화연구소원 컨벤션홀

△ 교통안전·사회안전 부문

- 공모대상 : 광주·전남 기관·단체 및 기업, 일반 시·도민, 학생

-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이메일 (gnlibo2@daum.net) 접수

△ 그림·포스터 부문

- 공모대상 : 광주·전남 초·중·고교생

- 공모주제 : 교통안전·사회안전 관련 주제

- 접수방법 : 광남일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우편접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4층 사업국)

- 제출작품 : 초등학생 (그림/8절지), 중·고등학생 (포스터/8절지)

△ 주최

광남일보, 광남일보 i-TV, 전라남도

△ 주관 : 광남일보

△ 후원 (예정)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손해보합협회,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원,

전라남도교통연구소원

△ 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 062-370-7090

※상기 내용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이 되었습니다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리다

문의 1899-5566
www.acc.go.kr

ACC의 다양한 소식을 SNS로 빠르게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 기념 하반기 주요 전시·공연

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참여 전시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6.29.(일)
전시	ACC 지역작가 초대전시 《이념의 산수극장》	~7.6.(일)
전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동시대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전시 ACC 포커스 《로지 이케다》	7.10.(목)~12.28.(일)
전시	아시아 대중음악이 표상하는 도시문화 전시 《애호가 편지》	~8.24.(일)
전시	민주인권·교류 가치 기초의 대규모 기획전시 《불의 선언》	9.5.(금)~26.22.(일)
전시	아시아문화박물관 중앙아시아 특별전시 《The Next Steppe, 초원의 바람》	10월~26.9월
전시	아시아 로컬리티를 재조명하는 전시 《말과 그림과 역사라는 이미지》	12월~26.2월
전시	ACC 주재전시 《테크네의 춤》-상호작용예술 기획전시	12월~26.2월
공연	현대적 기법, 장치로 재해석한 '미디어 판소리극 흥보가' 《제비노정기》	10.23.(목)~10.25.(토)
공연	아시아 연주가 3인의 문화·해석이 담긴 유니버셜 작품 《아시아 연주가 3부작》	11.14.(금)~11.15.(토)